# 예술과 풍류 사랑한 조선인

## 조선 500년 풍미한 사람 · 땅 · 문화 이야기

**조선의 문화공간(1~4권)**
이종묵 지음
휴머니스트 | 8만8000원

조선시대, 수많은 문화인들은 강가에 정자를 지어 시화를 즐겼다. 귀거래(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한 사람들은 강호로 물러나 사는 맛, 안분하는 삶을 글로 표현했다. 하지만 모두 편안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시대적 격랑을 만나 유배지에서의 고단함을 글로 지어 황량한 지역의 땅들을 빛나게 만들었다. 어떤사람들은 아예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산과 물을 배경으로 시와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림을 그렸다.

이 책 <조선의 문화 공간>은 문학, 사상, 예술, 풍류를 아우른 조선의 사람과 땅, 그 시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조선 500년을 풍미한 87인의 전기적 초상이 아름다운 문화 공간을 무대로 하여 펼쳐진다. 그들과 교우하고 살다간 1872명도 함께 소개돼 조선시대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거의 거론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15세기를 살았던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 김안국등의 젊은 선비들은 강학과 절조의 상징이다. 조선의 대표 선비로 꼽히는 조식, 이황, 이이, 서경덕은 16세기 같은 시기를 살았다. 모두 평생 학문을 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지리산, 청량산, 고산, 화담은 조선 학문을 상징하는 성지였다.

18세기의 주인공은 실학자들이다.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서유구는 각자의 처지에서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불우했지만 살아서 명예를 누린 자들보다 죽은 후에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조선의 문화공간>은 옛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시대에 따라 사랑한 땅과 그곳에서 살다간 삶의 방식이 다른 만큼 조선초기에서 부터 후기까지 총 4책으로 구성했다.

1책 '조선초기 -태평성세와 그 균열' 에서는 조선 개국 후 태평을 구가하던 시절에서부터 사화로 인하여 사림이 유배를 떠나는 시기까지를 다룬다.

조선 개국초기 100년간 한명회의 압구정, 월산대군의 망원정, 박은 이행의 한강 잠두봉이 이름난 시회의 공간이 됐다. 16세기로 접어들어 연산군의 광기로 태평성세를 이어보겠다던 유방선 조위 이주 등이 도성의 집을 떠나 유배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 특히 강학과 유방선은 원주 법천사를 중심으로 후학들과 시를 지으며 살았다.

2책 '조선중기 -귀거래와 안분' 은 선조대에서 광해군대까지 조선 문화사에서 중요한 인물과 관련한 공간이 다뤄진다. 사림정치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자의와 타의에 의한 귀거래, 그리고 그곳에서 수양에 힘쓰거나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이현보의 분천, 송순의 면앙정, 양사언의 감호, 박순의 창옥병, 그리고 임훈과 노진이 물러나 살던 안의삼동(安義三洞)이 그러한 곳이다.

또 청량산은 온유한 이황의 덕을 닮은 산이다. 한강 동호 건너에 있는 봉은사(奉銀寺)는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 최경창, 백광훈, 이달 등 세칭 삼당시인(三唐詩人)의 낭만적인 시가 제작된 공간이었다.

3책 '조선중기 -나아감과 물러남' 은 광해군과 인조대에 영욕의 세월을 산 문인과 이후 17세기 사상계와 문화계를 호령한 명인들이 살던 땅을 다룬다. 광해군 시절 서인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암흑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이항복은 북청으로 유배가서 죽었고, 김상용은 지방관으로 떠돌았다. 정경세는 고향땅 상주로 내려가 바보처럼 살고자 하였고, 신흠은 김포로 방축되어 가현산 아래 집을 짓고 살면서 맑은 운치를 즐겼다. 김상헌은 양주의 미호로 물러나 석실을 강학의 공간으로 삼아 학문에 힘을 쏟았고, 이식은 지평으로 가서 숨어사는 집 택풍당을 짓고 살았다. 장유는 안산의 고향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세월을 보내었다.

명분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어수선한 세상을 등지고 심신을 수양하고 강학에 몰두함으로써 절개를 지키고자 하였다. 채득기는 자천대에서, 송준길은 회덕의 송촌에서 은거하였다. 조선후기 사상계를 호령한 송시열은 화양동에 머물면서 이념을 실천하고자 하였고 제자 권상하는 황강에 한수재를 짓고 살면서 스승의 유업을 받들었다.

4책 '조선후기 -내가 좋아 사는 삶' 은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18~19세기 문학과 학문, 예술을 빛낸 문인들의 이야기다. 당대 문벌 김창흡 등은 금강산과 철원, 양평 등 산수가 아름다운 곳을 떠돌면서 살았다. 특히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수종사는 조선시대 문인 재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사진).

하지만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세상을 구하고자 한다. 홍대용은 목천에 자신의 과학정신을 담은 농수각(籠水閣)을 세우고 새로운 학문을 열고자 하였다. 박지원은 현감으로 나간 안의에서 관아를 보수하면서 중국 여행에서 깨달은 실학 정신을 구현하려 하였다.

이 책은 이종묵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가 아름다운 우리 땅에 대한 기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10여년 간 작업한 결실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네티즌강추

## 근사 체험한 그들,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죽음, 또 하나의 세계 (근사체험을 통해 다시 생각하는 죽음)**
최준식 지음, 동아시아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논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논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준식의 <죽음, 또 하나의 세계>는 일상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죽음에 대한 고민의 단초를 제공한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주된 관심은 '근사체험' 에 두고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의학계와 종교계의 견해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중요한 것은 사후 세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근사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차분히 고민해 볼 일이다. 이 책의 저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내가 동의하게 된 이유도 죽음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죽음에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권해볼만한 책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죽음에게 물어보라.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고민해보자.

(cognize, lifelog.blog.naver.com/cognize/r01_cognize_31811)

## 세계의 명화, 손가락 짚어가며 조목 조목 읽다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 김치샐러드 지음, 학고재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고흐나 고갱의 그림처럼 널리 알려진 그림이 아닌 약간 뒤켠에 위치한 명화들을, 교과서식의 풀이가 아닌 저자인 김치샐러드가 느끼는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화가의 의도야 어찌 되었든 손가락이 느끼는대로 아귀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가끔 작가의 억지가 보이기도 한다.

이 책은 이 작가의 그림을 읽는 방향을 엿보여주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을 읽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림 속에 있는 화가의 의도를 배제하고 그림을 이야기 해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고 있다보니 그림과 교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게다가 작가가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오는 고민들은 내 고민들과 엄청나게 맞아 떨어졌다. 왜 살아야 하는지의 끝없는 고민과, 내가 하고싶은 일과 해야할 일의 갈림길에 다다른 후의 막막함.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손가락과 아귀가 암흑속으로 잠기지만 그 불은 다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Moonlight, yes24.com/Goods/FTGoodsView)

## 책속의 밑줄긋기

○… '흙은 넓고 넓은 가슴입니다. 흙은 깊고 깊은 배려입니다. 흙은 높고 높은 은혜입니다. 흙은 낮고 낮은 겸손입니다. 흙은 한이 없는 인내입니다. 흙은 온갖 허물을 덮어주는 가이없는 용서입니다.'

흙집짓기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이 먼저 한뜻이 되도록 한다. 둘째, 관련 자료나 서적을 두루 탐독하고 흙집 학교를 수강한다. 셋째, 가족과 함께 흙 건축 기행을 한다. 넷째, 가능한 풍수지리를 고려해 좋은 터를 고른다. 다섯째 터와 친해진다. 여섯째, 기존의 터를 변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목 공사를 한다. 일곱째, 자재와 공구를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다. 여덟째, 중고 소형 굴삭기와 4륜구동 트럭을 구입한다. 아홉째, 약 200만원 내외의 비용을 들여 공구를 구입한다. 열째, 설계를 한다. 열한번째, 모형집을 만들어 본다. 열두번째, 자재를 뽑는다. 열세번째, 자재를 준비한다. 열네번째, 물을 해결한다. 열다섯번째, 전기를 설치한다. 열여섯번째, 화장실을 짓는다. -<일주일 만에 흙집짓기-원형흙집짓기> 본문 14쪽에서, 고제순 지음, 도솔오두막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서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가귀감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8권까지)
세월을 낚싯대로 세상을 낚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뒷산에 첫눈 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 법회가 9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법회입니다. ☎02-522-0122
* 광주선원 ☎062-944-4088
선문염송 / 9월17일(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051-545-2460
금강경 / 9월24일(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선가귀감 등 모든 법문 매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97-2460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콜크 中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건강 슬리퍼
지압(항균 실리콘. 동) 잠수복원단 개인별표시 극세사(방수원단) 미끄럼방지(논스립우레탄)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조청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조청원